

광주·전남, 메가시티 사업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대통령 주재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정부, '초광역권 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광주·전남 빛고을스마트메가시티·신해양수도 조성 등 제안
시·도, 군 공항 이전 등 갈등... 타 지역에 뒤쳐질 우려 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사업으로 메가시티 개념인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사업이 자리잡은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초광역협력계획·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로도 다양한 초광역 협력 촉진 정책이 도입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과 공조의 기 조 아래 초광역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차기 대선 공약에 초 광역협력 구상이 적시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도 원활한 소통이 요구된다. 특히, 메가시티 사업에 있어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어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분 권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 되는 걸음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 협력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총 사업비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 500억원 미만이면서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법을 개정해 광역자치체들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을 지원하는 한편, 전남 조직인 '법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할 구상도 갖고 있다. '메가시티'로 불리는 지역이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하도록 교통망 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실제로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의 광주·나주 구간 경우, 통행 시간이 81분에서 3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인재 양성을 돕고 새로운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공유대학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초광역협력사업으로 광주·전남 글로벌에너지 허브 구축, 광주시와 인근 5개 시·군을 연결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남해안 신성장 권역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광역경제권 구축,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 신해양·환경수도 조성 등을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현재 메가시티 구상은 전국 4개 권역에서 광역지자체들이 주도해 추진 중이다. 그 중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내년 일사분기에 특별자치체를 설치하고 2040년에는 인구 1천만명의 거대 생활권으로

성장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실질 GRDP(지역내총생산) 491조원,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추진 중이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미래형 혁신 인재 1만명을 육성하고 공항·항만을 연계한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로 성장해 국가 혁신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

겠다는 비전을 갖고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초광역협력 사업에서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 차질 없이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전입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

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만나 "전세나 집담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번 주말 한겨울 같은 추위 닥친다

광주지방기상청, 토요일부터 기온 푹 '한파특보' 발효

15~16일 5~20mm 비 예보

이번 주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예고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토요일인 1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해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일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섭씨 3도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고도 약 5km 상공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고, 지상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며 16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위는 18일까지 이어지다 잠시 소강세를 보인 뒤 20일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5~16일 광주와 전남에는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2~6도 더 낮아 실제 느끼는 추위는 더욱 강할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뚝심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검찰개혁 '공판중심주의' 정착 왜 더디나 ▶6면
복스 - '오는 날이 장날입니다' ▶14·15면
AI 페퍼스, 광주에 열리는 프로배구 시대 ▶18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메타그린 골드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 오셀록 농장의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바이탈뷰티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

제품 상담 | 080-023-5454
구매 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